

朝鮮朝 經筵에서 明宗의 讀書歷 考察*

A Study on King Myeongjong's Reading History in the Gyeonggyeon(經筵) of the Joseon Dynasty

金重權 (Kim, Joong-Gwon)**

◁ 목 차 ▷

| | |
|---------------------|--------|
| 1. 緒言 | 4.2 晝講 |
| 2. 明宗의 經筵制度 | 4.3 夕講 |
| 3. 讀書行態 | 4.4 夜對 |
| 4. 讀書의 回數 및 讀書 不進要因 | 5. 結言 |
| 4.1 朝講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13대 왕이었던 명종의 독서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實錄을 통해 재위 22년간 그의 행적을 일정별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명종이 경연제도를 재정비하고 그 제도에 따라 경연관들과 함께 읽었던 독서자료, 독서행태 및 독서회수 그리고 독서환경에 장애가 된 원인 등을 밝혔다. 그 결과 명종이 재위 22년간 읽었던 책은 『小學』, 『孝經』, 『大學』, 『論語』, 『孟子』, 『中庸』, 『大學衍義』, 『近思錄』, 『綱目』 등 총 9종으로 아주 지소한 독서력을 보여주었다. 경연관 역시 전 왕조에 비해 형식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명종 자신도 신체적인 문제, 대내외적인 문제 등으로 거의 독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要語: 綱目, 經筵, 近思錄, 論語, 大學, 大學衍義, 明宗, 小學, 中庸

* 본 논문은 2011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 문헌정보학과 교수(jkim@gwangju.ac.kr)

접수일: 2011년 9월 1일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12일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17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King Myeong-jong's reading history in the Gyeongyeon(經筵) of the Joseon Dynasty. From the records of 22 years during his reign in the Sillok(Royal Chronicles of the Joseon Period) this study identified what and how often he had read with the officers of the Gyeongyeon, his reading behavior, and the obstacles against his reading environment.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During 22 years of his reign, King Myeong-jong read only 9 titles, that is, *Sohag*(小學), *Hyogyong*(孝經), *Daehag*(大學), *Noneo*(論語), *Maengja*(孟子), *Jungyong*(中庸), and *Daehagyeonui*(大學衍義), *Guensarok*(近思錄), and *Gangmok*(綱目). He participated 814 times in the Jogang(morning lectures. 朝講), 419 times in the Jugang(day lectures. 晝講), and 723 times in the Seoggang(evening lectures. 夕講). It is demonstrated that he disliked reading. Moreover the officers of the Gyeongyeon were less eager than in the lectures for the previous kings, and King Myeong-jong himself could hardly read due to his physical conditions, and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of the country.

Key words: *Sohag*(小學), *Daehag*(大學), *Noneo*(論語), *Maengja*(孟子), *Jungyong*(中庸), *Daehagyeonui*(大學衍義), *Guensarok*(近思錄), *Gangmok*(綱目), King Myeong-jong, Gyeongyeon(經筵)

1. 緒 言

명종(1534-1567)의 아버지인 중종(1488-1544)은 단경왕후 신씨(자식없음), 장경왕후 윤씨(인종, 효혜공주), 문정왕후 윤씨(명종, 의혜, 효순, 경현, 인순), 경빈 박씨(복성군, 혜순, 혜정), 희빈홍씨(금원군, 봉성군), 창빈안씨(영양군, 덕흥대원군; 선조부친, 정신옹주), 숙의 홍씨(해안군), 숙의 이씨(덕양군), 숙원 이씨(정순, 효정옹주), 숙원 김씨(숙정옹주) 등 10명의 부인을 두었으며, 그 사이에 9남 11녀를 두었다. 이중 명종은 중종의 셋째부인 문정왕후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諱는 暉, 字는 對陽이다. 장경왕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종(1515-1545)이 죽자 그 뒤를 이어 12세의 나이로 1545년 왕위에 올랐다[왕위에 오르자 1545년 청릉부원군 심강의 딸(인순왕후; 1532-1575)과 혼인하였으며, 1551년 순회세자(1551-1563)를 낳았으나 13세에 요절하였다]. 나이가 어린 관계로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8년 동안 섭정하였다. 그 결과 문정왕후의 친족인 윤원형일파(명종의 외척; 소윤)는 장경왕후의 친족인 윤임일파(인종의 외척: 대윤)를 대거 숙청한 을사사화(1545)를 일으키게 되고, 불교를 숭상하여 승과, 도첩제 등을 부활하였으며, 보우를 병조판서직에 등용함으로 인해 많은 문신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또한 '위로는 여왕 아래로는 간신 李芑가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윤임일파에게 누명을 씌워 잔당을 축출한 양재역벽서사건(1547), 일본이 전남 강진과 진도 등에 들어와 약탈을 자행한 을묘왜변(1555), 임궫정의 난(1559) 등 상당한 내외란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하루도 편치 못한 세월을 어머니와 보내다가 문정왕후 사후 2년 있다가 1567년 6월에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명종의 독서는 경연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강, 주강, 석강, 야대를 경연관들과 책을 읽고 토론을 벌이며, 학문과 국사를 논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명종이 22년간의 집권에 따른 독서경력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므로 본고에서는 實錄을 통해 경연에서 명종의 독서행태 및 독서자료, 독서횟수 등을 파악하여 그의 독서력을 밝혀보고자 한다.

2. 明宗의 經筵制度

명종은 그의 이복형인 仁宗이 죽자 갑작스럽게 12세에 왕위에 올랐으므로 서연관으로 인한 독서는 물론 왕도에 관련된 체계적인 독서를 하지 못하였다. 너무 어려서 정사도 돌볼 능력이 없어 그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왕의 역할을 하면서 경연제도를 마련하여 독서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세자교육을 받지 못하고 왕위에 오른 문종은 하루 4회씩 독서할 기회가 주어졌다. 보편적으로 경연은 국상이 있으면 27일 뒤에 실시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고 한다.¹⁾ 따라서 인종이 7월 1일에 사망하였으므로 명종의 경연이 20일쯤부터 준비가 되었다. 즉위년(1545) 7월 21일에 『小學』이 인출되고 경연장소도 思政殿은 殯殿(장례식장)이 되어 독서할 수 없으므로 忠順堂으로 정해졌다(그러나 당시에는 왕의 거처에 따라 경연장소가 달라졌다. 거처하는 곳이 景福宮이면 思政殿으로 나아가고, 昌德宮이면 宣政殿, 昌慶宮이면 文政殿에 나아가고, 夜對에는 便殿으로 나아가는 등 일정한 장소가 없었다). 22일에는 尹仁鏡(1476 ; 성종 7-1548 ; 명종 3)의 건의로 조강, 주강, 석강, 야대가 정해 졌으며, 독서할 책도 조강과 주강에는 『小學』을, 석강과 야대에서는 『孝經』으로 정하였다.²⁾ 23, 4일에는 경연에서 입어야 할 의복을 정하였다. 조강에는 衰服을, 주강과 석강에는 布衣, 布冠, 麻帶를 착용하도록 하였다.³⁾

성종조에 완성된 『經國大典』 경연조의 내용에서는 경연관을 堂上官과 郎廳으로 구분하고, 당상관은 영사 3명, 지사 3명, 동지사 3명, 참찬관 7명으로 모두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문관이 아니어도 가능했다. 영사는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겸하고, 정 2품인 지사와 중2품 동지사 중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였으며(명종 초기에는 지사와 동지사 수가 정해진 바 없었으나 명종 6년 11월 2일 이후 3정승의 건의로 대전의 규칙을 따랐다), 참찬관은 정3품 승지와 홍문관부제학이 겸직했다. 낭청은 정4품 시강관, 정5품 시독관, 정6품 검토포관으로 모두 문관인 홍문관원이

1) 『朝鮮王朝實錄』 明宗 卽位年 7月 辛巳(21日) 卷1, 冊19. 272.

2) 『朝鮮王朝實錄』 明宗 卽位年 7月 壬午(22日) 卷1, 冊19. 273.

3) 『朝鮮王朝實錄』 明宗 卽位年 7月 甲申(24日) 卷1, 冊19. 274.

겸직하였다. 시강관은 直提學, 典翰, 應教, 副應教가 겸하였고, 시독관은 교리와 부교리가 겸하였으며, 검토관은 修撰과 副修撰이 겸하였다. 정7품 司經, 정8품 說經, 정9품 典經은 참외직으로 홍문관의 博士, 著作, 正字가 각각 겸임하였다.⁴⁾

<表 1> 經筵官 品階

| 品階 | 正1品 | 正2品 | 從2品 | 正3品 | 正4品 | 正5品 | 正6品 | 正7品 | 正8品 | 正9品 |
|--------|-----------|----------|-----------|--------------------|-----|-----|-----|-----|-----|-----|
| 職責 및 數 | 領事 3명 | 知事 3명 | 同知事 3명 | 參贊官 7명 | 侍講官 | 侍讀官 | 檢討官 | 司經 | 說經 | 典經 |
| 兼職 | 議政이 겸임 | | | 承旨와 副提學 이 겸임 | | | | | | |

그 밖에 2품 이상의 재상을 특진관이라 일컬어 경연에 참석하도록 하였다[초기에는 특진관이 조강, 주장, 석강에 모두 참여하였다. 4년 이후 특진관이 3강 모두 참여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문제로 명종 4년 6월 19일에 영의정 이기와 좌의정 심연원과의 의견차이가 있었다. 이기는 경연당상이 경연에 참여치 않으니 참여토록 하고 특진관 역시 3시에 모두 참여토록하자는 의견이었으며, 심연원의 경우는 경연당상은 마땅히 참여시켜도 되지만 특진관은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조강에만 참여시키자는 의견이었다. 2년 후 6년 4월 4일에 다시 참여여부가 거론되었다. 侍讀官 이감은 심연원의 주장에 동의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못하였다. 5월 26일에 우의정 尙震이 이기의 주장에 동참하자 특진관은 3시에 모두 참여토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7년 1월 24일에 명종이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영사 심연원(1491-1558)이 지사, 동지사, 특진관은 조강에 입시하여 소회를 피력하므로 주장, 석강에 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이들은 조강에만 입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명종조에 와서 당상관의 수를 10여명으로 증원하였다. 경연에 참석비율을 높이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증원에 따른 뒤에는 참석회수를 줄여보자는 의도가 담겨

4) 『經國大典』 吏典, 正三品衙門, 經筵條. 13 下.

져 있었다. 사헌부에서는 『經國大典』에 기재된 당상관 각 강별 3명씩으로 9명도 많은데 여기에 더 증원한다는 것은 사대부가 일신에 편의한 계획만을 세우면서 모두가 사무가 힘들어 수고로움을 분담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모두 취소해달라는 건의도 하였으나⁵⁾ 지켜지지 못했다. 어느 정도 경연제도가 정비되자 명종 즉위년 7월 29일에 원상 좌의정 유관과 좌찬성 이연적이 늦어도 8월 초에 경연을 열어 줄 것을 건의한 다음, 30일에 다음과 같은 상세한 내용의 <경연사목>을 올렸다.

“졸곡 전에 領經筵이 입시하면 상께서는 衰服을 입으시고 그 나머지의 進講 때는 布衣, 布冠, 麻帶로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경연을 처음 여는 날과 1일·5일·11일·15일·21일·25일에는 領事 1명, 경연 당상 1명, 승지 1명, 대간 각 1명, 경연관 2명, 注書, 史官 각 1명이 입시하게 하고, 晝講과 夕講에는 승지 1명, 경연관 2명, 주서·사관 각 2명이 입시하게 하였습니다. 朝講에는 進講官이 세 번 吟讀하고 두 번 해석하면 상께서는 음독과 해석을 각기 두 번씩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전에 들어가시어서는 음독 서른 번과 해석 열 번을 하셔야 합니다. 주강에는 전하께서 앞서 공부한 것을 음독 한 번에 해석 한 번을 하신 뒤에 진강관이 음독과 해석을 각각 두 번씩 하면 상께서는 또 음독 네 번에 해석 한 번을 하셔야 합니다. 석강에는 진강관이 음독 세 번에 해서 두 번을 하고 나면 상께서는 음독과 해석을 각각 두 번씩 하시며 내전에 들어가서는 음독 서른 번과 해석 열 번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날 조강에는 상께서 앞서 공부하신 것에 대해 음독과 해석을 각기 한 번씩 하시고 나면 진강관이 것처럼 진강하며, 다음날 석강에도 상께서는 앞서 공부하신 것에 대해 음독과 해석을 각각 한 번씩 하시고 나면 진강관이 전과 같이 진강하게 하였습니다.”⁶⁾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表 2>와 같다.

1일, 5일, 11일, 15일, 21일, 25일에는 영경연사가 들어와 강론하는 날이다. 대왕 대비는 발 안쪽에, 왕은 발 바깥쪽에 앉는다(영사는 초기에 육아일에만 참여하였으나 명종 6년 8월 16일 이후부터는 항상 조강에 참여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경연사목이 정해지자 병조 정량 정황이 대행왕의 장례일과 경연에 관한 일로 상소를 올렸다. 장례일을 단축하지 말 것과 경연은 상중에는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는 예법에 따라 경연을 늦추자는 내용이었다. 상소로 인해 문정

5) 『朝鮮王朝實錄』 明宗 3年 4月 己巳(24日) 卷7, 冊19. 589.

6) 『朝鮮王朝實錄』 明宗 卽位年 7月 庚寅(30日) 卷1, 冊19. 281.

왕후는 졸곡 전에는 주장과 석강은 생략하고 조강만 하는 것으로 의논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영의정 尹仁鏡(1476-1548) 등은 왕의 나이가 어려 학문이 시급하므로 3회 경연에 나가도록 경연규칙을 정하였으나 연고가 있으면 형편에 따라 실시하자는 의견이었다.⁷⁾ 즉위년 12월 17일에는 경연사목에 대한 일부 수정이 있었다. 사관이 조강에 1인만 들어가면 빠뜨리는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1명 더해서 2명이 참석하도록 하였다.⁸⁾

<表 2> 明宗의 經筵事目

| 經筵의 區分 | 朝講, 晝講, 夕講 |
|---------|---|
| 讀書方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講: 進講官이 音讀 3회, 해석 2회하면 명종은 음독과 해석을 각 2회, 내전에 들어가서 음독 30회, 해석 10회 • 晝講: 공부한 것을 음독 1회에 해석 1회뒤에 진강관이 음독과 해석을 각각 2회씩 하면 상계서는 또 음독 4회에 해석 1회 • 夕講: 진강관이 음독 3회에 해석 2회를 하고 나면 명종은 음독과 해석을 각각 2회, 내전에 들어가서는 음독 30회와 해석 10회 • 경연전: 명종은 음독과 해석을 각기 1회씩 함 |
| 六衛日 參與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강: 영사 1명, 경연 당상 1명, 승지 1명, 대간 각 1명, 경연관 2명, 注書, 史官 각 1명이 입시 • 주장, 석강: 승지 1명, 경연관 2명, 주서·사관 각 2명이 입시 |
| 場所 | 忠順堂 |
| 經筵 資料 | 小學 |

명종 1년 3월에는 기존의 제도를 다시 수정되었다. 즉, 경연에서 강할 때 音讀 3차례, 해석 3차례 실시했던 것을 음독 2차례, 해석 2차례로 변경하였다.⁹⁾ 또한 六衛日에 강론하는 날 왕을 발 바깥 동쪽에 앉고 대비가 안쪽에 앉도록 한 것을 명종과 대비가 모두 발 안쪽에 착석하되 대비는 서쪽에 앉아 동쪽을 바라보고, 명종은 동쪽에 앉아 서쪽을 바라보도록 하였다.¹⁰⁾ 그러나 명종 2년 1월 21일

7) 『朝鮮王朝實錄』 明宗 卽位年 8月 癸巳(3日) 卷1, 冊19. 283.

8) 『朝鮮王朝實錄』 明宗 卽位年 12月 丙午(17日) 卷2, 冊19. 375.

9) 『朝鮮王朝實錄』 明宗 1年 3月 丁卯(10日) 卷3, 冊19. 400.

10) 『朝鮮王朝實錄』 明宗 1年 7月 壬戌(8日) 卷4, 冊19. 430.

조강에서는 思政殿 처마 밑에서 실시하였는데 명종은 약간 동쪽으로 가서 西向하였고 대왕대비가 殿上에 발을 드리운 것으로 보면 좌석위치가 상황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종이 어린나이에 집권하자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절실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 고에서 살핀 성종의 제도에 비해 더 적극적인 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3. 讀書行態

명종은 1544년 11세 겨울에 홍역과 1545년 2월에는 水疱를 앓은 탓으로 기운이 부실한 가운데 왕위를 계승하여 하루에 5회씩(아침 저녁의 奠, 아침 저녁의 上食, 낮의 茶禮) 곡을 하는 등의 상례로 피곤에 지쳐있었다. 그 와중에 문신들은 왕의 학문을 위해 경연관들과 함께 독서하도록 규정을 정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종이 어떤 행태로 독서에 임했는지 즉위년부터 재위 22년 사망 직전까지의 독서 행태를 편년형식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명종이 처음으로 경연을 실시하게 된 때는 즉위년(1545) 8월 9일이었다. 당시 장소는 忠順堂이었으며, 독서 자료는 명종의 나이와 독서력에 알맞은 책으로 조강에는 『小學』, 석강에는 『孝經』이 선정되었다. 경연관은 조강에 知經筵事 李彥迪(1491-1553), 영경연사 尹仁鏡(1476-1548) 등이 참석하여 『小學』을 선정하게 된 동기와 이유, 학문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였으며, 석강에서는 『孝經』을 독서자료로 하여 효의 근본을 설명하였다.¹¹⁾ 8월 10일에는 주장, 11일에는 조강을 쉬지 않고 계속 실시하자 문정왕후(1501-1565)는 자식의 건강이 걱정되었던지 졸곡 전에 경연을 열지 않는다는 상소도 있었고, 또한 나이가 어리고 역질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아주 허약하므로 보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정왕후의 발언으로 경연에서의 독서는 당분간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¹²⁾

11) 『朝鮮王朝實錄』 明宗 卽位年 8月 己亥(9日) 卷1, 冊19. 286-287.

10월까지 경연에서의 독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독서를 한다 해도 하루걸러 실시하거나 아니면 한 두 줄 경연관하고 읽다가 중단하곤 하였다. 이에 원상 이언적이 즉위년 10월 25일 송나라 원풍 8년 철종의 예를 들어 경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는 제외하고 건강이 좋을 때 경연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그 후 10월 29일에 동지경연사 申光漢(1484-1555)¹³⁾과 시강관 南應龍이 『小學』을 읽고 학문의 필요성과 『小學』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였다.¹⁴⁾ 10월 30일 주장, 11월 3일 주장을 실시하고 다가오는 15일에 중종의 소상이라 하여 4일 주장 이후에는 경연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11월 4일 주장에서는 동지경연사 沈連源(1491-1558)이 『小學』이 비록 童蒙의 책이라 하지만 灑掃應對에서부터 修身·齊家·治國·平天下까지의 근본이 되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중요시하라고 하였으며, 시독관 白仁英, 說經 任輔臣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그 후 중종의 소상이란 구실로 경연을 열지 않았으며, 12월 6일에야 날씨가 따뜻하므로 7일에 주장에서 경연관들과 독서하자는 연락을 하였다. 7, 9일 주장을 실시하고, 9일에는 처음으로 야대를 실시하였다. 야대의 과목으로는 석강에서와 같이 『孝經』으로 정하였다. 그 날 開讀은 보통 때는 경연당상관이 하였는데 야대에서는 홍문관 관원이 개독하도록 하였다. 다음 날 홍문관에서는 경연에서의 개독은 경연당상관이 아니라 홍문관 직속 상관이 하는 것이 관례라는 건의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¹⁵⁾ 12월 11일의 주장에는 대왕대비가 참석하였다.

12월 17일에는 시강관 李萇, 지경연사 丁玉亨, 참찬관 崔演 등은 학문의 효과는 문자만 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새겨 연구하는데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올바르게 해야 성인이 된다는 것을 어린 왕에게 가르친 것이다.¹⁶⁾ 그 날 밤 야대에서는 참찬관 任虎臣이 효제를 강조하였

12) 『朝鮮王朝實錄』 明宗 卽位年 8月 丙午(16日) 卷1, 冊19. 290.

13) 光漢은 일찍부터 文章이 뛰어났다. 己卯年(중종 14, 1519) 이후로는 閑散의 시골에서 살면서 士林이 중히 여겼으며, 丁酉年(중종 32, 1537)에 조정으로 돌아온 뒤로는 몸을 보존하고 벼슬자리를 지키려고 世路에 부침하였으므로 그르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한다.

14) 『朝鮮王朝實錄』 明宗 卽位年 10月 戊午(29日) 卷2, 冊19. 360.

15) 『朝鮮王朝實錄』 明宗 卽位年 12月 己亥(10日) 卷2, 冊19. 371.

16) 『朝鮮王朝實錄』 明宗 卽位年 12月 丙午(17日) 卷2, 冊19. 375.

다. 다음 날 하루 주장을 끝으로 즉위년의 독서는 막을 내렸다.

해가 바뀌어 명종 1년에는 1, 2월에는 독서를 하지 않았다. 명종이 독서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월 26일 사간원에서 독서를 계속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 건의를 받은 명종은 자신이 큰 병을 앓았고, 중국사신의 접대문제로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내일(27일)부터 시작한다는 회답을 하였다.¹⁷⁾ 약속대로 27일에는 조강과 석강을 열어 참찬관 柳辰全, 知經筵事 許磁, 참찬관 崔濱 등이 참여하여 『小學』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석강에서는 知經筵事 許磁가 참석하여 효제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 후 4월까지 경연이 잘 이루어졌다. 그런데 홍문관에서 尹元老와 李建陽에 대한 탄핵상소를 올리자 지난번 이미 해결된 일을 가지고 다시 거론하므로 마음이 심란하여 경연을 할 여유가 없으니 조강도 석강도 열지 말라고 하였다.¹⁸⁾ 5월 5일에 삼공이 가서 경연에 참석토록 설득하자 5월 8일부터 다시 조강과 석강이 속개되었다. 어린 왕이라 마음을 조절하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서는 마음이 안정되고 여유로운 상태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6월 중순 경부터 7월 중순까지 더위관계로 방학을 하고, 7월 18일부터 다시 경연을 시작하였다. 9월 21일에는 독서자료를 『孝經』에서 『大學』으로 변경하였다. 12월 들어 날씨가 추워 조강을 중지하고 주장을 간간히 열었다.

명종 2년에는 1월 13일부터 조강을 실시하였으며, 과목은 『大學』으로 하였다. 1월 14일 『大學』을 읽고 경연관들과 토론하였으며, 1월 25일에는 주세붕이 『小學』과 『大學』의 차이점, 경연에서 학문하는 자세, 강론했던 것을 더 읽어서 의심나는 곳을 질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글로 써서 올렸으며, 2월 7일에는 『大學』의 전체내용 1,751자 중에서 긴요한 내용만을 요약하여 설명한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¹⁹⁾ 동년 4월 20일에는 명종이 경연관을 불시에 불러 질문하자 참찬관 한두가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가 말하길, “불러서 질문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불시에 불러서 질문하실 때에는 자세하게 상고하여 답을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상께서 의심나는 곳에 付標해서 내려주실 경우 경연관이 질정하고 강론

17) 『朝鮮王朝實錄』 明宗 1年 2月 癸丑(26日) 卷3, 冊19. 394.

18) 『朝鮮王朝實錄』 明宗 1年 5月 丁巳(2日) 卷3, 冊19. 415.

19) 『朝鮮王朝實錄』 明宗 2年 2月 己丑(7日) 卷5, 冊19. 480.

하여 그 뜻을 깊게 안 다음에 入對하면 반드시 의심되고 막히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무릇 학문의 義理는 무궁한 것이니 만약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막히는 곳이 없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학자들의 못된 관행인지 모른다. 평소에 독서에 열중하여 모든 내용에 대한 사실을 알고 답변해야 한다. 더구나 왕의 스승 격인 경연관들이 미리 의심나는 곳을 표시하여 알려주지 않았다하여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그들은 학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당시 사관들은 다음과 같이 경연관들에게 불만을 표하였다.

“경연관은 마땅히 모든 글을 講究하여 그 뜻을 자세히 다 알고 불시의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그의 직책이다. 하물며 당시에 進講하고 있는 서적이겠는가. 이미 평일에 자세하고 명확하게 질정하지 못하고, 上前에 召對하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한갓 번거롭게 책장만 넘긴다면, 어찌 마음에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대체로 요즈음의 風習이 점점 더 怠慢해져 비록 학자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전혀 讀書하지 않고 교묘하게 入侍를 모면하고 있는 자가 매우 많다. 어찌다가 入對하는 날에 臨迫해서 講究하여 한 갓 句讀만 뉘 줄 알 뿐이니, 그 폐단이 어찌 이 지경이 되지 않겠는가. 軾의 이 말은 스스로 편의하기가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史臣은 이 말이 뒷날의 폐단을 열어놓을 것을 두려워한다.”²⁰⁾

이는 당시 경연에서 경연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다. 韓軾의 발언에 이어서 바로 典經 趙璞은 왕께서 젊기 때문에 열심히 독서해야 함을 강조하고,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면 독서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는 내용과 왕이 열심히 독서하고 불시에 불려 질문하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내용, 학문은 句讀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마음에 본받기를 힘써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전하였다. 趙璞의 말에서 당시 명종의 독서행태를 보면 구두에만 치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 4월 28일에도 사간원 대사간 李夢亮 등이 올린 차자의 내용 중에

20) 『朝鮮王朝實錄』 明宗 2年 4月 辛丑(20日) 卷5, 冊19. 498.

“所謂經筵官，固當講究諸書，詳盡其意，以備不時之顧問，乃其職也。況於當時進講之書乎。既不能詳明質正於平日，而及其召對於上前，茫然莫知，徒煩披閱，寧無自愧於心乎。大抵近日之習，漸成懶慢，雖在論思之地，專不讀書，巧免入侍者，滔滔。幸有入對之日，則臨迫講究，只解口讀，其爲弊也，豈不至此乎。軾之此言，自便莫甚。臣恐尤有以開後日之弊也。”

명종의 독서 행태에 대한 우려가 기록되어 있다. “겉으로 익히는 것이 비록 부지런 할지라도 마음에 체험하는 것이 깊지 않기 때문에 事物에 대하여 막힘이 있고 일에 臨하여 결단이 적습니다. 혹 是非와 好惡의 분간에 혼란스럽고 吉凶과 消長의 기틀에 어두우시니, 신들은 전하의 학문하는 것이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²¹⁾라는 내용이다. 이는 명종이 겉으로 독서한답시고 구두에만 치중하여 입을 뿐이지 마음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데도 결단력이 부족함을 비판한 것이다.

며칠 후 5월 4일에는 주세붕(1495-1554)이 독서자료로 『中庸』에 대한 공부법에 대해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을 보면,

“전하께서 총명은 타고나셨고 文理는 남보다 뛰어나십니다. 一心을 끊임없이 밝혀서 끝까지 학문에 힘을 기울이시어, 『小學』을 읽으시면서 함양하는 방법을 이미 터득하셨고 『大學』을 배움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남을 啓導하려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순서대로 차츰 나아가심에 침착하여 여유가 있었고 날이 갈수록 성취, 진보하셨습니다. 『中庸』을 읽으시면서 옛사람의 妙를 구하시기에 이르셨습니다. (중략) 비록 그렇더라도 책에 실려 있는 道는 숨겨지거나 드러남이 없지만 그 책을 읽는 사람의 학문에는 깊고 얕음이 있습니다. 句讀만을 바르게 떼는 데 그친다거나 文理만을 분명하게 밝히는 데에 그친다면, 그것은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여서 한갓 종이에 쓰인 빈말이 된 채 口耳의 지역적인 공부만 되돌아오는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이치를 파고들어 얻는 바가 있고 마음에 체득하여 실천하는 바가 있어야만, 배운 바가 자신의 것이 되어 종신토록 쓰더라도 다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中庸』의 한 책을 살펴보건대, 논한 것이 깊고 은밀하여 초학자는 쉽게 알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큰 요체는 첫째 章 속에 들어있으니 存省하는 방법이 모두 논의되어 있고 功化의 큼을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중략) 전하께서 부지런히 경연에 나아가시어 하루에 세 번씩 접견하시므로 구두나 글 뜻에 정확하다는 것은 신들이 모두 들어온 바입니다. 그러나 이치를 파고들고 마음에 체득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전하만이 혼자 아시는 일이고, 신들의 어리석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²²⁾

본 내용은 시각관이었던 주세붕이 『小學』, 『大學』에서 얻은 점과 『中庸』의 독서 방법 및 명종의 독서행태에 대해서 건의한 것이다.

21) 『朝鮮王朝實錄』 明宗 2年 4月 己酉(28日) 卷5, 冊19. 499.

22) 『朝鮮王朝實錄』 明宗 2年 5月 甲寅(4日) 卷5, 冊19. 500.

동년 6월 11일에는 侍讀官 沈逢源이 왕의 건강문제로 조강시간을 진시(7-9)로 옮기자고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시독관 金鑑은 학문은 반드시 맑은 새벽에(모든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보고 듣는 것이 고요할 때) 익히는 것이 좋다 하여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선왕들의 조강시간이 일찍이 묘시(5-7)였음을 알 수 있다.

명종 3년에는 1월 4일부터 경연을 시작하였다. 동 1월 24일 晩朝啓에 대왕대비가 수렴한 자리에서 이기와 황헌이 명종의 독서자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李芑: 학문은 때를 넘기면 반드시 막히는 병통이 있게 되는데, 경연에 부지런히 나가시는 것이 바로 이 때입니다. 속히 四書三經을 講讀해야 합니다. 經書를 알고 나면 천하에 모를 일이 없는 것입니다.

黃憲: 먼저 경서를 읽는 것이 帝王의 학문하는 절차로 보아서 옳으나, 보통 사람의 경우로 말하자면 틈틈이 『史記』를 읽은 뒤라야 文理가 쉽게 통달합니다. 臣은 사서를 進講할 때에 『史略』을 곁해서 진강한다면 歷代의 興亡과 人物의 邪正을 또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李芑: 황헌이 아뢴 말을 신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古今の 治亂이 四書 가운데 들어 있으니, 반드시 역사책을 읽은 후에 아는 것은 아닙니다. 『史記』는 後儒의 손에서 저술된 것인데, 옛날 程子の 門人이 『史記』를 많이 읽자 정자가 玩物喪志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제왕의 학문을 어찌 『史記』로 할 수 있겠습니까. 經學을 깊이 연구하여 이치를 깨닫고 나면 치란과 흥망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科擧를 보는 데 급급하여 우선 『史記』를 읽어서 속히 진취하기를 바라는데, 이 때문에 是非를 모르는 사람이 그득합니다. 제왕의 학문은 반드시 경서를 먼저 읽어서 이치를 알고, 또 마음 속계 공경을 위주로 삼아 다른 생각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史記』는 비록 진강하지 않더라도 보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대왕대비: 조정에서 매번 학문을 勸進하는데, 나도 학문은 의당 젊었을 때에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史記』를 곁해서 진강하는 일은 지금 해서는 안 되니, 좌상의 뜻이 과연 타당하다. 경서를 반드시 진심하여 읽어야만 그것을 베풀어 쓸 수가 있다. 경서를 깨치고 나면 『史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²³⁾

23) 『朝鮮王朝實錄』 明宗 3年 1月 辛丑(24日) 卷7, 冊19. 559.

“李芑曰：學問過時，則必有扞格之病，經筵勤御，此其時也。速講四書三經。經書既知，則天下無不能知之事矣。” 右贊成黃憲曰：“先讀經書，在帝王學問節次則是矣。若閭巷之人，則間讀『史記』，然後文理易達。臣意以爲四書進講時，兼進『史略』，則歷代興亡人物邪正，亦可知之。” 李芑曰：“黃憲所啓，臣不以爲是也。古今治亂，亦在於四書之中，不必讀史然後知之。『史記』出於後儒之手，昔程子門人，多誦『史記』，程子以爲玩物喪志。況帝王學

이 논란이 있던 뒤 3개월 뒤인 4월 24일에 명종의 독서자료 선정문제가 다시 거론되어 南應雲(1509-1587)은 四書を 완독한 뒤에 『史記』를 읽어야 한다고 추천하였다.²⁴⁾ 당시 명종은 『孟子』를 읽고 있었다. 『孟子』를 읽은 후에는 역대 흥망 성쇠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읽어야 한다는 황헌, 남응운 등이 대비에게 건의했으나 대비는 이기의 말이 옳다 하여 이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기(1476-1552)는 소윤과 인 윤원형, 윤원로 등과 결탁하여 을사사화를 일으킨 인물로 대비에게는 오른팔 격이었다.

경연관들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미리 부표하여 질문하라는 건의에 따라 동년 1월 26일에는 『論語』에 네 곳을 부표하여 경연관들에게 전해주고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였다.²⁵⁾

3년 2월 5일에는 지경연사 洪暹이 조강에서 “상께서 어린 나이로 즉위하시어 학문하는 것을 급무로 여기시고 부지런히 경연에 나오시니 누군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論難하거나 質問하는 때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민망하게 여깁니다.”²⁶⁾라고 한 것을 보면 명종이 책을 읽고도 여전히 질문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흥섭의 건의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 저녁 석강에서는 『論語』 <雍也>편과 <子罕>편에 부표를 하여 經筵廳에 내리면서 이를 考閱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였다. 그 내용에 대한 토론 내용을 보면,

명종: ‘위태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危邦不入)’ 하였으니,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옳겠지만,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 위치(委質)하여 신하가 되었다면 떠날 수 있겠는가?

시강관 洪暹: 이것은 聖인이 사람을 가르친 말인데, 만일 이미 위치하였다면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問, 何以『史記』爲哉. 善潛心經學, 道理旣通, 則治亂興亡, 不難知之. 閭巷之人, 急於科舉, 先讀『史記』, 以求速化, 由此不知是非者滔滔. 帝王之學, 要須先讀經書, 以通其理, 又以敬主於中, 而無他念, 則『史記』雖不進講, 覽之甚易.” 慈殿曰: “朝廷每以學問勸進, 予意亦以爲學問, 當勤於小時也. 但『史記』之兼進, 今不可爲之, 左相之意果當. 其於經書, 必專心讀之, 然後可以施用. 若通經書, 則『史記』在其中.”

24) 『朝鮮王朝實錄』 明宗 3年 4月 己巳(24日) 卷7, 冊19. 589.

25) 『朝鮮王朝實錄』 明宗 3年 1月 癸卯(26日) 卷7, 冊19. 560.

26) 『朝鮮王朝實錄』 明宗 3年 2月 壬子(5日) 卷7, 冊19. 561.

- 검토관 尹潔: 이것은 당초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注에서 ‘위태로움을 보고 몸을 바쳐 노력하기로 하였으면(見危授命) 떠날 만한 의리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 명종: 性과 天道의 뜻을 자상하게 듣고 싶다.
- 홍담: 性이란 사람이 타고 난 天理이고, 天道란 天理自然의 本體입니다. 성인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 그 사람이 배울 만한 것에 따라서 가르쳤기 때문에 子貢이 이 말을 가장 늦게야 들었던 것입니다.
- 윤결: 성과 천도는 학문이 얽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이치가 일에 드러나기 이전을 천도라 하고, 천리의 본체가 여기서부터 발단해 나가는 것을 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 명종: ‘행실이 말을 가리지 못한다(行有不掩)’는 뜻을 자상하게 듣고 싶다.
- 홍담: 孔子가 門弟子들과 더불어 앉아 각각 자기 뜻을 말하게 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일의 말단적인 것을 말하였으나 曾點은 가슴속이 천지의 이치와 똑같아서 그가 간직한 樂은 堯舜의 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실은 말과 같지 않았으니, 이것이 곧 狂이 되는 이유입니다.
- 윤결: 증점은 남의 訶음을 듣고도 비파를 타며 노래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행실이 말을 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의 독서토론 내용은 명종이 15세 때의 일이다. 질문내용에 대해 경연관들이 답변은 했으나 명종은 그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 이는 그 설명에 대한 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명종 3년 3월 18일 석강에서는 명종이 앞에 배운 것을 읽을 때에, 한 줄을 빼놓고 읽자 검토관 朴民獻이 특별히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해서 사신은 경연에 나가서 글 한 줄을 빼놓고 읽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혼탁하고 게으른 기색이 있기 때문이니 정신을 가다듬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비판과 함께 박민헌의 발언에 찬동하기도 하였다.²⁷⁾

동년 3월 22일에는 명종은 박민헌에게 『孟子』의 浩然之氣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였다. 박민헌의 설명을 들었으나 이해를 못 했는지 다음 날 홍문관 측에 浩然의 형용과 心·性·情·理·氣를 분명히 글로 써서 아뢰도록 하였다. 명종이 글을 읽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장을 읽고 토론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27) 『朝鮮王朝實錄』 明宗 3年 3月 癸巳(18日) 卷7, 冊19. 577.

그 내용을 이해도 못하는 상황에서 질문과 토론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8월 25일에는 명종이 여전히 학문이나 정사에서도 가부를 논한 적이 없자 지경연사 심연원은 학문하는 길이 반드시 論難 후에 의리가 더욱 밝아지는 것이니 「中庸」의 審問, 明辨이 이것입니다. 進講하는 즈음에 상께서 만일 의심나는 곳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자세히 묻고 이해하게 되면 학문이 날로 밝아져서 의심이 없게 될 것이니 정치에서도 학문하듯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도록 건의하였다.²⁸⁾

9월 9일에는 盤松亭에서 經筵官에게 잔치를 내렸으며, 10월 17일에도 「孟子」를 완독하고 그 기념으로 승정원, 홍문관 및 교체된 경연관들까지도 불러들여 술을 하사하며 기뻐하였다.²⁹⁾ 이듬해인 명종 4년(1549) 1월 13일에도 경연관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상을 내렸다. 앞으로 1년간 열심히 독서하겠다는 다짐의 자리였다. 그러나 그 후 특별히 어떤 책을 설정하여 읽었다는 근거가 없다. 다만 간간히 경연을 열며 독서를 하거나 토론을 하기도 하였으나 후반기부터는 문신들의 보우를 탄핵하는 상소로 인해 독서에 신중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4년 10월 11일부터는 자신이 부덕하여 재변이 자주 일어난다 하여 政殿을 피하여 思政殿 처마 밑에서 조강을 하도록 하였으니 독서가 제대로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다. 보다 못한 이기, 심연원, 상진 등은 날씨가 춥고 또한 勤政殿은 정전이고 思政殿은 정전이 아니니 정전에서 경연을 하도록 건의했으나³⁰⁾ 처마 밑의 독서는 중단하지 않았다. 명종 4년에 독서토론에 함께한 경연관은 영경연사 沈連源(1491-1558), 지경연사 申光漢, 任權, 尙震, 특진관 曹光遠, 姜顯, 尹漑, 구수담, 宋世珩, 윤원형, 金明胤, 시강관 南應龍, 시독관 鄭裕, 李士弼, 참찬관 閔箕 등이었다.

명종 5년(1550)에는 여름에 구수담(1500-1550)이 을사사화 때 영의정 유관(1484-1545)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하여 사사되는 사건 등으로 경연이 과행적으로 운영되었다.

6년(1551) 3월 16일에는 동지중추부사 申瑛이 중국에서 구한 「異端辨正」 한 부를 바치면서 경연에서 여가가 있을 때 읽도록 하였다. 이 책은 당시의 이름 있는

28) 「朝鮮王朝實錄」 明宗 3年 8月 丁卯(25日) 卷8, 冊19. 611.

29) 「朝鮮王朝實錄」 明宗 3年 10月 戊午(17日) 卷8, 冊19. 617.

30) 「朝鮮王朝實錄」 明宗 4年 12月 辛丑(6日) 卷9, 冊19. 677.

선비가 편집한 것으로, 자신의 길을 지키고 邪說을 비판하는 先賢들의 格言을 빠짐 없이 모았으며 조목마다 선비들의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다.³¹⁾

명종 7년(1552) 1월 21일에는 同知經筵事 洪暹이 명종의 독서력을 비판하였다. 그가 명종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성상께서 근실히 경연에 나아가시어 학문이 진취되고 날로 고명해지셔서 講官이 進講하는 글을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단지 音釋을 일삼을 뿐 더불어 심오한 뜻을 논란하지는 않습니다. 대저 학문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中庸』에서는 明辯을 학문의 공력으로 삼은 것입니다. 상께서 만약 의심나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학사들과 서로 토론하여서 읽고 듣기만 하는 학문에 그치지 않으신다면, 聖學이 날로 진취될 것이요 군신간의 정의 또한 이로 인해 미더워질 것이니, 성상께서는 유념하십시오.”³²⁾

위의 내용에서 홍섭(1504-1585)이 명종은 읽고 해석만 할 뿐 깊은 뜻은 모르고 있으며, 또한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도 토론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때 명종의 나이 19세이다. 상당히 많은 책을 읽고 열면 토론을 벌이며 이상을 펼칠 나이이다. 그런데 그가 글을 읽고 생각한다거나 의심스러운 곳을 질문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독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명종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연관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경연에 나가면 명종과 같이 형식적으로 읽고 해석만 할 뿐 깊은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시간이 끝나면 나온다는 것이다. 당시의 사관이 비평한 내용에서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아, 三代 이후는 임금에 士大夫를 접하는 곳이 경연뿐이었으니, 賢人君子로서 자신이 배운 것을 임금에게 進達하고자 하는 자가 또한 이 자리를 버리고 어디에서 찾겠는가? 지금 進講하는 자들은 句讀만 한 차례 강독해 넘긴 다음에는 다시 한마디의 말도 없고, 임금 또한 전혀 관심이 없다. 후세 임금의 덕이 이처럼 예스럽지 못한 것이 괴이할 게 무엇이겠는가.”³³⁾

31) 『朝鮮王朝實錄』 明宗 6年 3月 甲辰(16日) 卷11, 冊20. 16.

32) 『朝鮮王朝實錄』 明宗 7年 1月 甲辰(21日) 卷13, 冊20. 70.

33) 『朝鮮王朝實錄』 明宗 7年 2月 甲戌(22日) 卷13, 冊20. 75.

상기의 내용 외에도 경연관 중 李瑛이 개인에 대한 사관의 평을 보면, 경연에 들어가 진강할 때마다 문리도 통하지 못하여 책만 어루만지고 말도 잘 하지 못하여 동석한 선비들이 놀리며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최악의 평을 내리기도 하였다.³⁴⁾ 이는 당시 경연관의 선발이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연관이 진강할 때 부복하여 작은 소리로 말하므로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여 고개를 들고 큰소리로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보면³⁵⁾ 이들의 실력도 문제지만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명종 8년(1553) 초에는 경연에서 『大學衍義』를 읽었으며, 4월에는 지경연사 任權이 기묘년(1519) 이후로 읽지 않았던 『近思錄』을 읽도록 권장하였다. 이 책은 周子·程子·張子の 말씀으로 周濂溪의 太極圖說에 이르러서는 天地萬物, 陰陽의 造化, 吉凶의 消長의 이치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하여 권장한 것이다(당시 조광조 등이 『小學』이나 『近思錄』을 중요시 하여 널리 읽혀 왔는데 조광조가 사사된 이후로 이 책들은 간괘들의 보따리이며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실은 그렇지 않다 하여 멀리하였다).³⁶⁾

명종 9년(1554)에도 계속해서 『大學衍義』를 읽으면서도 여전히 해석에만 치중하고 임금의 덕을 기르는 데 소홀하다는 사관의 비평을 받기도 하였다.³⁷⁾ 당시 『大學衍義』를 읽고 토론한 경연관은 전경 洪天民, 참찬관 鄭維吉, 대사간 鄭裕, 참찬관 成世章, 집의 李士弼, 영경연사 尙震,³⁸⁾ 지경연사 任權,³⁹⁾ 동지경연사 李浚慶, 참찬관 尹仁恕, 대사헌 尹春年, 영경연사 沈連源, 특진관 曹光遠, 영경연사 尹漑, 지경연사 安玆, 시강관 魚季瑄 등이었다. 『大學衍義』 독서에 시독관 陸詹, 전경 李龜壽, 사경 尹澍⁴⁰⁾ 등도 참여하여 명종 10년(1555) 4월말 완독하였

34) 『朝鮮王朝實錄』 明宗 7年 3月 甲午(12日) 卷13, 冊20. 77.

35) 『朝鮮王朝實錄』 明宗 7年 1月 丁未(24日) 卷13, 冊20. 71.

36) 『朝鮮王朝實錄』 明宗 8年 4月 癸巳(18日) 卷14, 冊20. 131.

37) 『朝鮮王朝實錄』 明宗 9年 2月 乙酉(14日) 卷16, 冊20. 184.

38) 尙震은 평생동안 남을 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長者의 기상이 있었다. 그러나 일에 임하여 의심스러운 것을 결단할 때에는 剛斷이 부족하여 時論이 병으로 여겼다고 한다.

39) 任權은 천성이 강직하여 아침을 하지 않았는데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식이 모자라고 도량이 편협하고 善을 좋아하는 기상이 없었다.

다. 『大學衍義』를 완독한 후 鄭惟吉, 尹漑, 尹澍 등은 명종 10년 4월 29일 조강에서 명종이 다음 독서할 책으로 『綱目』과 『近思錄』 2책을 놓고 논의하였다. 그 선정과정을 보면,

참찬관 鄭惟吉: 經筵에서 進講하는 『大學衍義』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綱目』 및 『近思錄』을 진강하기로 의논을 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本館이 참작하여 함께 의논해 보니, 비록 巷閭의 학문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 精力을 분산하여 한 가지 것에 전력하지 않으면 또한 溫故知新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온갖 機務를 처리하는 여가에 세 가지 책을 아울러 진강한다면 한 가지 것에만 주력한 것과 같은 공효가 없게 될까 싶습니다. 또 경연관들도 반드시 여러 가지 책을 參考하여 顧問에 대비해야 하는데, 만일 세 가지 책을 진강한다면 더러는 미처 참고해보지 못하여 事體에 해로울까 염려됩니다.

영경연사 윤개: 中宗께서 春秋가 한창이실 때에는 또한 세 가지 책을 아울러 진강하였기에 전례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近思錄』은 학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공부해 가는 순서도 지극히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이를 먼저 진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이 삼가 듣건대 세종대왕께서는 『綱目』을 읽기를 좋아하시어 백번이나 읽으셨다고 합니다. 무릇 我朝의 禮樂의 제정이 모두 세종 때에 되었는데 이는 聖王께서 학문을 좋아하신 효과입니다.

성상께서도 진실로 세종처럼 학문을 좋아하신다면 비록 세 가지 책이라도 아울러 진강하여 前代의 興亡의 자취와 先儒들의 절요한 말들을 모두 고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착실히 힘쓴다면 어느 책인들 日用に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학문을 계속해서 밝히는 공부에도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세 가지 책을 진강하려고 한 것이 이 때문인데, 지금 경연관이 아뢰는 말을 들어보건대, 또한 옳기도 합니다. 성상께서 이미 經書를 講究하셨으니 實學에 있어서의 大概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서는 卷帙이 매우 방대하여 비록 이미 다 강구하셨더라도 혹 범연한데가 있을까 싶기에 『近思錄』을 진강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유길: 『綱目』은 朱子의 心法이 구비된 것이므로 진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개: 『綱目』은 과연 다른 史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春秋』는 곧 사람의 사욕을 방지하고 天理가 보존되게 한 책인데, 『綱目』의 저작은 이를 본받은 것이니 이는 참으로 진강해야 할 책입니다.

40) 尹澍는 성질이 본래 경솔하고 날카로우며, 金弘度·金繼輝·李龜壽·姜克誠과 결탁하여 朋黨이 되어 주색에 빠져 날마다 술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대개 이 사람들은 모두 尹春年의 門下에 드나들어 좋은 벼슬을 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朝鮮王朝實錄』, 明宗 10年 4月 癸巳(29日) 卷18, 冊20, 265.).

司經 尹澍: 『近思錄』이 비록 후세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공부하는 순서가 지극히 자세하고 꼭진하여 남김이 없습니다. 주자가 이 책을 저작하여 덕에 들어가는 문을 지시하였고 들인 공력도 또한 지극하였습니다. 이 책의 진강은 오늘날에 가장 절실한 것이니, 만일 『綱目』의 진강을 끝낸 뒤에 진강한다면 너무 늦을 듯합니다.⁴¹⁾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다음 독서할 책으로 『近思錄』이 선정되었으며, 『近思錄』을 완독한 뒤에는 『綱目』을 읽도록 하였다. 새로운 책을 선정 받은 며칠 후인 5월 16일부터 전라남도 달랑포에 왜선 70여 척, 가리포, 회령포 등에 왜적이이 침략해온 관계로 경연에서의 독서는 계속될 수가 없었다. 왜란이 잠잠해지자 7월 30일에 조강과 석강을 통해 독서였으나 『近思錄』을 언제까지 읽고 완독했는지는 알 수 없다. 『近思錄』의 독서토론은 시독관 陸詹, 吳祥, 전경 李龜壽, 기사관 兪泓, 사경 尹澍祥 등과 함께 하였다.

11년(1556)에 검토관 朴啓賢, 12년 시독관 李文馨 등 독서토론자의 기록이 보이고 12년, 13년에는 경연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없다. 명종 14년(1559) 1월 30일에 명종은 새벽에 비가 왔다하여 경연의 중단을 요구했다. 殿閣이 높아서 비바람이 부는 날에는 글 읽는 소리가 희미할 뿐 아니라 말소리도 분명하지 못하고, 경연관이 드나드는 즈음에 의복이 젖어서 억지로 일을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⁴²⁾ 이러한 근거는 계속해서 독서를 했으나 거의 형식적이었으며, 다른 구실들을 들어 쉬는 날이 많았다.

명종 15년(1560) 5월 16일에는 대사간 李楨 등이 『大學』, 宋 眞德秀의 『大學衍義』, 明의 丘濬 이 지은 『大學補遺』 등은 窮理, 正心, 修己, 治人하는 방법이 모두 이 책에 실려 있다하여 경연이 없을 때나 한가할 때 반드시 읽도록 권장하기도 하였다.⁴³⁾ 『近思錄』을 완독한 일자는 알 수 없으나 명종 16년(1561)에는 『資治通鑑綱目』을 읽었다. 『資治通鑑綱目』을 읽는 중 의심나는 부분을 시강관에게 질문하였는데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41) 『朝鮮王朝實錄』 明宗 10年 4月 癸巳(29日) 卷18, 冊20. 265.

42) 『朝鮮王朝實錄』 明宗 14年 1月 壬寅(30日) 卷25, 冊20. 500.

43) 『朝鮮王朝實錄』 明宗 15年 5月 辛卯(26日) 卷26, 冊20. 556.

명종: 桓溫이 北伐할 때에 王羲之의 말이 옳았는데 桓溫이 따르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李遴:

명종: 姚弋仲의 아들 姚襄은 어떤 사람인가?

李遴: 요익중은 오랑캐인데 자식을 경계한 말이 훌륭하였습니다. 때문에, 오랑캐에게는 썩이라고 쓰지 않는데 요익중에게 썩이라고 썼습니다.

명종: (말없이 책을 덮었다.)⁴⁴⁾

위의 내용은 경연에서 책을 읽고 명종이 질문하였으나 경연관이 답변을 못하거나, 요양을 물었는데 姚弋仲에 대해 답변을 했으니 답변을 잘못된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경연관의 자질이 아주 부족했음을 볼 수 있다. 경연관들이 경연에서의 독서를 중요시 여겼더라면 문신의 선발이 이와 같이 형식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후 17(1562), 18(1563), 19(1564), 20(1565), 21년(1566), 22년(1567) 6월 28일 34세로 사망할 때까지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

이상으로 명종의 독서 행태를 살펴보았다. 그가 22년간의 재위 중에 읽었던 책은 「小學」, 「孝經」,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大學衍義」, 「近思錄」, 「資治通鑑綱目」 등으로 몇 9종에 지나지 않는다.

4. 讀書의 回數 및 讀書 不進要因

본 장에서는 명종이 12세에 즉위하여 22년간 집권하면서 3강과 야대를 실시한 바, 그 회수를 조사하고, 또한 조선 9대 임금인 성종도 13세에 즉위하여 25년간 집권한 것으로 보면 독서기간이 서로 비슷한 처지이므로 두 왕의 독서회수를 비교하여 독서력의 차이도 밝히고자 한다.

4.1 朝講

조강은 이른 아침(묘시 5-7)에 경연관들과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44) 「朝鮮王朝實錄」 明宗 16年 10月 戊辰(12日) 卷27, 冊20. 605.

명종의 경우 성종과 같이 어린나이에 집권하였으므로 3강과 야대까지 실시하였다. 조강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연관이 誦讀 3회, 해석 2회하면 명종은 음독과 해석을 각 2회, 내전에 들어가서 음독 30회, 해석 10회를 실시하였으며, 1일, 5일, 11일, 15일, 21일, 25일 등 육아일에는 영경연사가 들어와 강론하는 날로 정하고, 이 날은 대왕대비도 참석하도록 하였다. 조강에서는 경연관이 선정한 책으로 독서한 후 주강에서는 복습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명종은 시간이 갈수록 독서에 나태하여 독서회수가 감소하였다. 집권 22년 동안 연도별로 조강회수를 보면, 즉위년(5개월) 3회, 1년 74회(성종: 243회), 2년 114(성종: 254), 3년 86(성종: 250회), 4년 103(성종: 237회), 5년 85(성종: 262회), 6년 64(성종: 241회), 7년 34(성종: 225회), 8년 33회(성종: 230회), 9년 58회(성종: 171회), 10년 29회(성종: 202회), 11년 36회(성종: 171회), 12년 26회(성종: 166회), 13년 17회(성종: 158회), 14년 8회(성종: 77회), 15년 7회(성종: 57회), 16년 8회(성종: 94회), 17년 7회(성종: 109회), 18년 9회(성종: 90회), 19년 2회(성종: 80회), 20년 3회(성종: 55회), 21년 5회(성종: 110회), 22년 4회(성종: 98회) 등으로 모두 814회로 집계되었다. 성종 집권 25년간 3,774회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물론 시대적인 배경도 문제가 있으나 왕을 교육하려는 경연관들의 정신도 문제가 있었다.

<表 3> 朝講回數

| 月 年度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計 | 累計 |
|---------|----|----|-------|----|----|----|----|----|--------|----|------|----|-----|-----|
| 즉위년 | - | - | - | - | - | - | - | 2 | - | 1 | 0 | 0 | 3 | 3 |
| 1 | 0 | 3 | 13 | 10 | 4 | 6 | 3 | 12 | 10 | 13 | 0 | 0 | 74 | 77 |
| 2 | 11 | 18 | 13 | 8 | 11 | 10 | 0 | 10 | 10(11) | 7 | 5 | 0 | 114 | 191 |
| 3 | 6 | 16 | 9 | 15 | 15 | 0 | 4 | 8 | 5 | 8 | 0 | 0 | 86 | 277 |
| 4 | 12 | 14 | 14 | 9 | 6 | 8 | 0 | 15 | 8 | 15 | 2 | 0 | 103 | 380 |
| 5 | 2 | 12 | 12 | 11 | 9 | 9 | 13 | 4 | 13 | 0 | 0 | 0 | 85 | 465 |
| 6 | 0 | 9 | 10 | 5 | 11 | 0 | 1 | 8 | 6 | 11 | 3 | 0 | 64 | 529 |
| 7 | 0 | 7 | 5 | 3 | 7 | 0 | 0 | 1 | 5 | 6 | 0 | 0 | 34 | 563 |
| 8 | 0 | 3 | 5(12) | 3 | 6 | 0 | 3 | 1 | 0 | 0 | 0 | 0 | 33 | 596 |
| 9 | 7 | 13 | 10 | 4 | 3 | 0 | 2 | 10 | 7 | 1 | 1 | 0 | 58 | 654 |
| 10 | 1 | 2 | 5 | 4 | 4 | 0 | 1 | 3 | 4 | 5 | 0(0) | 0 | 29 | 683 |
| 11 | 2 | 6 | 5 | 6 | 4 | 0 | 0 | 3 | 9 | 1 | 0 | 0 | 36 | 719 |

| 年度 \ 月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計 | 累計 |
|--------|----|------|-----|----|------|----|------|----|-----|------|----|----|----|-----|
| 12 | 1 | 5 | 2 | 5 | 4 | 0 | 1 | 0 | 4 | 4 | 0 | 0 | 26 | 745 |
| 13 | 2 | 0 | 0 | 1 | 1 | 3 | 0(5) | 1 | 3 | 1 | 0 | 0 | 17 | 762 |
| 14 | 0 | 1 | 3 | 1 | 0 | 0 | 0 | 0 | 0 | 3 | 0 | 0 | 8 | 770 |
| 15 | 0 | 2 | 1 | 0 | 1 | 0 | 0 | 2 | 0 | 1 | 0 | 0 | 7 | 777 |
| 16 | 0 | 0 | 3 | 1 | 1(0) | 0 | 0 | 3 | 0 | 0 | 0 | 0 | 8 | 785 |
| 17 | 0 | 2 | 1 | 1 | 0 | 0 | 0 | 0 | 2 | 1 | 0 | 0 | 7 | 792 |
| 18 | 0 | 3 | 1 | 2 | 0 | 0 | 0 | 3 | 0 | 0 | 0 | 0 | 9 | 801 |
| 19 | 0 | 2(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803 |
| 20 | 0 | 2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 806 |
| 21 | 0 | 0 | 1 | 1 | 0 | 0 | 0 | 0 | 0 | 3(0) | 0 | 0 | 5 | 811 |
| 22 | 0 | 4 | 0 | 0 | 0 | 0 | - | - | - | - | - | - | 4 | 814 |
| 총회수 | 44 | 124 | 125 | 90 | 87 | 36 | 33 | 82 | 101 | 81 | 11 | 0 | | 814 |

4.2 晝講

주강은 조강에 읽었던 범위를 복습하는 형식이다. 즉, 명종이 아침에 공부한 부분을 소리 내어 1회 읽은 뒤 해석 1회를 하면 進講官이 音讀과 해석을 각각 2회씩 하고, 또 명종이 音讀 4회에 해석 1회를 하는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주강은 조강에 비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22년간 주강 총회수는 419회로 나타났다. 성종이 25년간 총 2,324회에 비하면 거의 독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위년 5개월간 8회, 1년 24회(성종: 230회), 2년 17회(성종: 221회), 3년 24회(성종: 235회), 4년 31회(성종: 219회), 5년 27회(성종: 204회), 6년 30회(성종: 218회), 7년 31회(성종: 144회), 8년 32회(성종: 22회), 9년 31회(성종: 22회), 10년 33회(성종: 23회), 11년 21회(성종: 82회), 12년 36회(성종: 10회), 13년 25회(성종: 53회), 14년 19회(성종: 32회), 15년 15회(성종: 26회), 16년 7회(성종: 60회), 17년 2회(성종: 74회), 18년 1회(성종: 73회), 19년 2회(성종: 36회), 20년 3회(성종: 47회), 21년 0회(성종: 80회), 22년 0회(성종: 70회) 등이다. 성종의 경우 8년, 9년, 10년은 명종에 비해 저조한 독서력이다. 당시성종의 경우 스스로 왕권을 행사하면서 독서할 수 있는 여가를 내지 못하였으며, 8년부터는 왕비윤씨사건, 대왕대비

사망 등으로 인해 충격이 컸던 시기로 독서력이 저조하였으나 명중은 집권 초기부터 독서력이 저조했음을 알 수 있다.

<表 4> 書講回數

| 年度 \ 月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計 | 累計 |
|--------|----|------|-------|---|------|---|------|---|------|------|------|----|----|-----|
| 즉위년 | - | - | - | - | - | - | - | 1 | 0 | 1 | 1 | 5 | 8 | 8 |
| 1 | 0 | 0 | 4 | 4 | 1 | 0 | 0 | 3 | 0 | 1 | 10 | 1 | 24 | 32 |
| 2 | 2 | 0 | 1 | 0 | 0 | 0 | 0 | 0 | 1(1) | 0 | 9 | 3 | 17 | 49 |
| 3 | 1 | 2 | 3 | 7 | 6 | 0 | 0 | 4 | 0 | 1 | 0 | 0 | 24 | 73 |
| 4 | 1 | 0 | 1 | 2 | 1 | 0 | 0 | 3 | 4 | 2 | 14 | 3 | 31 | 104 |
| 5 | 2 | 2 | 6 | 5 | 3 | 0 | 2 | 5 | 2 | 0 | 0 | 0 | 27 | 131 |
| 6 | 3 | 5 | 5 | 5 | 4 | 0 | 0 | 1 | 2 | 3 | 2 | 0 | 30 | 161 |
| 7 | 1 | 6 | 3 | 4 | 1 | 0 | 0 | 6 | 6 | 4 | 0 | 0 | 31 | 192 |
| 8 | 0 | 6 | 4(14) | 1 | 1 | 0 | 1 | 2 | 2 | 1 | 0 | 0 | 32 | 224 |
| 9 | 1 | 6 | 8 | 1 | 1 | 0 | 0 | 6 | 4 | 2 | 2 | 0 | 31 | 255 |
| 10 | 1 | 6 | 10 | 1 | 3 | 0 | 0 | 2 | 3 | 4 | 3(0) | 0 | 33 | 288 |
| 11 | 1 | 4 | 3 | 4 | 0 | 0 | 0 | 3 | 4 | 2 | 0 | 0 | 21 | 309 |
| 12 | 5 | 3 | 3 | 5 | 5 | 0 | 0 | 1 | 6 | 8 | 0 | 0 | 36 | 345 |
| 13 | 4 | 1 | 0 | 4 | 2 | 1 | 0(3) | 3 | 4 | 3 | 0 | 0 | 25 | 370 |
| 14 | 2 | 6 | 2 | 5 | 0 | 0 | 0 | 0 | 1 | 3 | 0 | 0 | 19 | 389 |
| 15 | 3 | 5 | 2 | 1 | 1 | 0 | 0 | 1 | 2 | 0 | 0 | 0 | 15 | 404 |
| 16 | 0 | 0 | 2 | 2 | 0(0) | 0 | 1 | 0 | 1 | 0 | 0 | 0 | 7 | 411 |
| 17 | 0 | 1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2 | 413 |
| 18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414 |
| 19 | 0 | 2(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416 |
| 20 | 0 | 2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 419 |
| 2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0) | 0 | 0 | 0 | - |
| 22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 0 | - |
| 총회수 | 27 | 57 | | | | | | | | | | | | 419 |

4.3 夕講

석강은 저녁에 하는 독서로, 진강관이 음독 3회에 해석 2회를 하고 나면 명중은 음독과 해석을 각각 2회, 내전에 들어가서는 음독 30회와 해석 10회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명종이 22년 동안 석강에 참여하여 독서한 회수는 즉위년에 1회, 1년 75회(성종: 192회), 2년 77회(성종: 221회), 3년 65회(성종: 236회), 4년 100회(성종: 214회), 5년 47회(성종: 240회), 6년 36회(성종: 214회), 7년 33회(성종: 141회), 8년 37회(성종: 36회), 9년 57회(성종: 21회), 10년 36회(성종: 17회), 11년 40회(성종: 38회), 12년 31회(성종: 6회 대왕대비 승하), 13년 17회(성종: 37회), 14년 12회(성종: 11회), 15년 21회(성종: 6회), 16년 8회(성종: 57회), 17년 7회(성종: 71회), 18년 6회(성종: 66회), 19년 2회(성종: 27회), 20년 4회(성종: 43회), 21년 4회(성종: 70회), 22년 4회(성종: 59회) 등 총 723회이다. 성종의 석강 총 2,142회에 비해 독서력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表 5> 夕講回數

| 年度/月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計 | 累計 |
|------|----|------|------|----|------|---|------|----|------|------|------|----|-----|-----|
| 즉위년 | - | - | - | - | - | - | - | 1 | 0 | 0 | 0 | 0 | 1 | 1 |
| 1 | 0 | 3 | 13 | 16 | 7 | 2 | 0 | 12 | 7 | 11 | 3 | 1 | 75 | 76 |
| 2 | 7 | 13 | 8 | 5 | 10 | 1 | 0 | 6 | 8(7) | 7 | 4 | 1 | 77 | 153 |
| 3 | 6 | 9 | 6 | 10 | 12 | 0 | 0 | 10 | 6 | 6 | 0 | 0 | 65 | 218 |
| 4 | 12 | 16 | 13 | 6 | 6 | 2 | 0 | 8 | 7 | 11 | 16 | 3 | 100 | 318 |
| 5 | 1 | 5 | 12 | 7 | 8 | 0 | 4 | 2 | 8 | 0 | 0 | 0 | 47 | 365 |
| 6 | 3 | 6 | 4 | 3 | 3 | 0 | 0 | 0 | 7 | 4 | 6 | 0 | 36 | 401 |
| 7 | 0 | 5 | 6 | 1 | 4 | 0 | 0 | 6 | 5 | 7 | 0 | 0 | 34 | 435 |
| 8 | 0 | 7 | 5(9) | 5 | 6 | 0 | 1 | 3 | 1 | 0 | 0 | 0 | 37 | 472 |
| 9 | 8 | 16 | 10 | 2 | 2 | 0 | 1 | 10 | 4 | 4 | 2 | 0 | 59 | 531 |
| 10 | 2 | 2 | 10 | 4 | 0 | 0 | 1 | 1 | 5 | 8 | 3(0) | 0 | 36 | 567 |
| 11 | 3 | 4 | 7 | 6 | 6 | 0 | 1 | 3 | 7 | 3 | 0 | 0 | 40 | 607 |
| 12 | 5 | 1 | 2 | 8 | 4 | 0 | 1 | 0 | 2 | 8 | 0 | 0 | 31 | 638 |
| 13 | 1 | 2 | 0 | 3 | 2 | 2 | 0(0) | 4 | 1 | 2 | 0 | 0 | 17 | 655 |
| 14 | 1 | 4 | 1 | 4 | 0 | 0 | 0 | 0 | 0 | 2 | 0 | 0 | 12 | 667 |
| 15 | 3 | 6 | 4 | 3 | 2 | 0 | 0 | 1 | 2 | 0 | 0 | 0 | 21 | 688 |
| 16 | 0 | 0 | 1 | 1 | 2(0) | 0 | 1 | 2 | 1 | 0 | 0 | 0 | 8 | 696 |
| 17 | 0 | 2 | 1 | 1 | 0 | 0 | 0 | 0 | 1 | 2 | 0 | 0 | 7 | 703 |
| 18 | 0 | 1 | 2 | 3 | 0 | 0 | 0 | 0 | 0 | 0 | 0 | 0 | 6 | 709 |
| 19 | 0 | 2(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711 |
| 20 | 0 | 2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 | 715 |
| 21 | 0 | 0 | 1 | 1 | 0 | 0 | 0 | 0 | 0 | 2(0) | 0 | 0 | 4 | 719 |
| 22 | 0 | 4 | 0 | 0 | 0 | 0 | - | - | - | - | - | - | 4 | 723 |
| 총회수 | 52 | 110 | 117 | 89 | 74 | 7 | 10 | 69 | 79 | 77 | 34 | 5 | | 723 |

4.4 夜對

야대는 밤에 경연관을 초대하여 평상시 독서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이다. 명종의 경우는 야대를 많이 열지 않았다. 경연관을 초대하여 실시한 토론회수를 보면, 즉위년 1회, 1년 4회(성종: 0회), 2년 12회(성종: 48회), 3년 13회(성종: 73회), 4년 12회(성종: 77회), 5년 10회(성종: 100회), 6년 9회(성종: 94회), 7년 9회(성종: 27회), 8년 3회(성종: 14회), 9년 18회(성종: 3회), 10년 31회(성종: 4회), 11년 13회(성종: 5회), 12년 16회(성종: 1회), 13년 13회(성종: 12회), 14년 3회(성종: 3회), 15년 5회(성종: 2회), 16년 0회(성종: 12회), 17년 2회(성종: 6회), 18년 0회(성종: 2회), 19년 0회(성종: 1회), 20년 0회(성종: 3회), 21년 0회(성종: 2회), 22년 0회(성종: 4회) 등 총 173회로 14년부터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성종의 경우는 25년 동안 총 508회를 실시한 것으로 보면 명종은 야대에서도 독서의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表 6> 夜對回數

| 年度 \ 月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計 | 累計 |
|--------|---|---|------|---|---|---|------|---|---|----|------|----|----|-----|
| 즉위년 | - | - | - | - | - | - | - | 0 | 0 | 0 | 0 | 1 | 1 | 1 |
| 1 | 0 | 0 | 0 | 0 | 0 | 0 | 0 | 0 | 1 | 1 | 1 | 0 | 3 | 4 |
| 2 | 0 | 2 | 1 | 1 | 0 | 1 | 0 | 1 | 2 | 2 | 1 | 1 | 12 | 16 |
| 3 | 2 | 2 | 2 | 1 | 1 | 0 | 1 | 2 | 1 | 0 | 0 | 1 | 13 | 29 |
| 4 | 1 | 2 | 1 | 1 | 0 | 0 | 0 | 1 | 1 | 2 | 2 | 1 | 12 | 41 |
| 5 | 2 | 1 | 1 | 2 | 1 | 0 | 0 | 2 | 0 | 0 | 1 | 0 | 10 | 51 |
| 6 | 0 | 2 | 1 | 0 | 0 | 0 | 0 | 1 | 2 | 1 | 1 | 1 | 9 | 60 |
| 7 | 0 | 1 | 0 | 0 | 0 | 0 | 0 | 2 | 2 | 4 | 0 | 0 | 9 | 69 |
| 8 | 0 | 0 | 0(0) | 0 | 0 | 0 | 0 | 2 | 1 | 0 | 0 | 0 | 3 | 72 |
| 9 | 1 | 3 | 2 | 1 | 1 | 0 | 0 | 4 | 2 | 3 | 1 | 0 | 18 | 90 |
| 10 | 3 | 2 | 3 | 3 | 1 | 0 | 0 | 0 | 2 | 1 | 5(6) | 5 | 31 | 121 |
| 11 | 1 | 2 | 1 | 0 | 0 | 0 | 1 | 1 | 3 | 3 | 0 | 1 | 13 | 134 |
| 12 | 4 | 1 | 1 | 1 | 1 | 0 | 0 | 0 | 3 | 2 | 1 | 2 | 16 | 150 |
| 13 | 2 | 0 | 0 | 2 | 0 | 0 | 0(4) | 1 | 0 | 1 | 2 | 1 | 13 | 163 |
| 1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1 | 1 | 3 | 166 |

| 年度 \ 月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計 | 累計 |
|--------|----|------|----|----|------|---|---|----|----|------|----|----|-----|-----|
| 15 | 2 | 2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5 | 171 |
| 16 | 0 | 0 | 0 | 0 | 0(0) | 0 | 0 | 0 | 0 | 0 | 0 | 0 | 0 | |
| 1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1 | 2 | 173 |
| 1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19 | 0 | 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2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2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0) | 0 | 0 | 0 | |
| 22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 0 | |
| 총회수 | 18 | 20 | 13 | 12 | 5 | 1 | 6 | 17 | 21 | 21 | 23 | 16 | 173 | 173 |

이상으로 명종의 조강, 주강, 석강, 야대에 대해서 조사한 바, 집권 22년 동안 조강 814회, 주강 419, 석강 723, 야대 173회로 나타났다. 성종에 비교하면 3강과 야대에서 현저하게 저조한 독서력을 보였다. 명종 8년에 독자적으로 정치를 맡았으나 직간접적으로 문정왕후의 개입이 계속된 까닭에 개인적인 독서에도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그나마 10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독서량이 감소하였으며, 14년부터는 22년 사망할 때까지 한 달에 1회 정도로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 명종이 1년 중 가장 독서를 많이 한 때는 6월을 중심으로 전후반기로 구분했을 때 전반기는 2, 3, 4, 5월, 후반기는 8, 9, 10월에 독서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6, 7월은 더위로 인해, 11, 12, 1월은 추위로 인해 독서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종의 독서력이 부진했던 원인을 보면, 첫째는 왕위에 오르자 을사사화로 인해 많은 문신들이 숙청된 사건, 둘째는 왜구의 침략, 셋째 문정왕후의 불교숭상으로 인한 문신들과의 대립과 아울러 보우의 문제, 넷째 세자와 문정왕후의 사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당시 상황들이 명종에게는 심리적인 중압감을 주게 되자 독서할 기회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된 원인은 그의 신체적인 건강 문제였다. 문종은 원래 병약하여 자주 병치레를 하였다.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는 역질로 고생하였으며, 명종 12년부터는 여름과 가을 사이만 되면 몸에 열이 상충하기 시작한다는 熱症이 발병하곤 하였다. 더욱이 계해년(명종 18년, 1563)에 세자가 죽은 뒤부터는 상심으로 인해 그 증세가 심해졌으며, 을축년(명종 20년,

1565) 믿었던 어머니인 문정왕후마저 세상을 등지자 병세가 더더욱 깊어졌다. 열로 인해 귀도 어두워지고, 手振證으로 인해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따라서 명종은 어머니의 정권간섭으로 인한 의타심, 심약함, 병약함 등이 원인이 되어 책을 집중해서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結 言

이상으로 조선 13대 왕인 명종의 독서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명종은 12세에 집권하여 독자적인 정국운영이 어려워 문정왕후의 섭정이 필요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왕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연에서의 교육이 절실하였다. 따라서 명종 역시 조강, 주장, 석강, 야대로 구분하여 경연관, 독서자료, 장소, 의복 등 경연사목을 정하여 독서하기 시작하였다.

2) 독서의 행태는 주로 읽고 해석에만 치중하였으며, 경연관 역시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명종이 22년간 읽었던 책은 「小學」, 「孝經」,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大學衍義」, 「近思錄」, 「資治通鑑綱目」 등이다.

3) 조강, 주장, 석강, 야대에 대해서 조사한 바, 성종의 경우는 조강 3,774회, 주장 2,324회, 석강 2,142회, 야대 508회로 총 8,748회로 나타났으나 명종은 집권 22년 동안 조강 814회, 주장 419, 석강 723, 야대 173회로 나타났다. 성종에 비교하면 3강과 야대에서 현저하게 저조한 독서력을 보였다.

4) 독서력 저하 원인은 신체적인 문제, 을사사화, 왜구침입, 불교숭상, 보우사건 등 대외적인 원인도 있으나 가장 주된 원인은 경연관들의 실력과 태도였으며, 문종자신의 신체적인 병약함으로 인해 독서의욕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原典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增補文獻備考」.

2. 論文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91.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成宗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제32집 (2005. 12). 537-574.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韓國史論』 6(1986). 117-170.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 (1970. 12). 131-18.

<附錄> 明宗朝의 經筵官

| 年度 \ 官職 | 經筵官 官職 吳 人名 |
|---------|--|
| 即位年 | 領經筵事: 尹仁鏡, 知經筵事: 李彥適, 丁玉亨, 參贊官: 崔演, 羅淑, 說經: 任輔臣, 侍講官: 南應龍, 李萑, 侍讀官: 郭珣, 白仁英 |
| 1 | 領經筵事: 李芑, 尹仁鏡, 洪彥弼, 知經筵事: 許磁, 申光漢, 李彥適, 慎居寬, 崔輔漢, 丁玉亨, 尹元衡, 權應昌, 沈連源, 閔齊仁 參贊官: 柳辰全, 崔演, 宋世珩, 沈光彥, 任虎臣, 金益壽, 李夢亮, 趙士秀, 金魯, 洪暹 特進官: 李瀛, 任權, 申瑛, 趙士秀, 金麟孫, 金光準, 鄭士龍, 尙震, 羅世繼, 任權, 尹思翼 侍講官: 李萑, 沈通源, 周世鵬, 尹仁恕, 宋贊 侍讀官: 宋贊, 鄭軀慤, 李首慶, 尹仁恕, 閔箕, 權容, 周世鵬, 金鎧 檢討官: 俞絳, 韓智源, 尹春年, 朴民獻 |
| 2 | 領經筵事: 李芑, 知經筵事: 洪暹, 南世健, 閔齊仁, 任權, 參贊官: 周世鵬, 韓岬, 特進官: 宋璵, 朴守良, 崔演, 鄭士龍, 尹元衡, 鄭萬鍾, 檢討官: 柳景深, 李戡, 柳潛, 侍講官: 閔棻, 元繼儉, 沈逢源, 李浣, 侍讀官: 沈逢源, 金鎧, 宋贊, 典經: 安名世, 趙璞 |
| 3 | 領經筵事: 李芑, 同知經筵事: 任權, 洪暹, 尙震, 特進官: 金益壽, 黃憲, 元衡, 金明胤, 李浚慶, 參贊官: 柳智善, 檢討官: 朴民獻, 侍講官: 洪曇, 鄭惟吉, 金澍, 侍讀官: 尹玉, 鄭惟吉 |
| 4 | 領經筵事: 沈連源, 知經筵事: 申光漢, 任權, 尙震, 特進官: 曹光遠, 姜顯, 尹漑, 具壽聃, 宋世珩, 尹元衡, 金明胤, 侍講官: 南應龍, 尹仁恕, 李鐸, 侍讀官: 鄭裕, 李士弼, 參贊官: 閔箕 |
| 5 | 領經筵事: 沈連源, 尙震, 知經筵事: 尹思翼, 許磁, 申光漢, 特進官: 安玳, 尹漑, 宋世珩, 尹思翼, 尹元衡, 侍講官: 洪曇, 鄭惟吉, 尹玉, 侍讀官: 韓智源 |
| 6 | 領經筵事: 李芑, 沈連源, 尙震, 尹漑, 知經筵事: 金光準, 任權, 鄭士龍, 特進官: 姜顯, 金命胤, 安玳, 尹元衡, 尹漑, 南世健, 柳辰全, 侍講官: 尹玉, 王希傑, 尹春年, 侍讀官: 李戡, 王希傑, 參贊官: 趙士秀, 南應雲, 成世章, 權輒 |
| 7 | 領經筵事: 尹漑, 沈連源, 同知經筵事: 洪暹, 安玳, 特進官: 元繼儉, 任虎臣, 宋世珩, 參贊官: 李鐸, 成世章, 鄭裕, 侍講官: 鄭浚, 侍讀官: 李浣, 禹錫, 說經: 安琿 |
| 8 | 領經筵事: 沈連源, 尙震, 知經筵事: 李浚慶, 申光漢, 檢討官: 李彥忠, 侍講官: 任鼎臣, 侍讀官: 任鼎臣, 鄭宗榮, 權容, 典經: 金鎮 |
| 9 | 領經筵事: 沈連源, 尙震, 尹漑, 知經筵事: 任權, 李浚慶, 安玳, 參贊官: 鄭維吉, 鄭裕(대사간), 成世章, 尹仁恕, 尹春年(대사헌), 特進官: 曹光遠, 侍講官: 魚季瑄, 侍讀官: 李彥憬, 典經: 洪天民, 執義: 李士弼 |
| 10 | 領經筵事: 沈連源, 侍講官: 沈守慶, 李彥忠, 鄭宗榮, 侍讀官: 陸詹, 申汝惊, 吳祥, 鄭宗榮, 典經 吳 說經: 李龜壽, 記事官: 俞泓, 司經: 尹澍 |
| 11 | 檢討官: 朴賢翼, 侍讀官: 盧碩 |
| 12 | 侍講官: 權容, 侍讀官: 金德龍, 李文馨, 檢討官: 俞泓 |
| 13 | 知經筵事: 洪暹, 侍講官: 尹毅中, 李文馨 |
| 14 | 領經筵事: 李浚慶, 侍講官: 盧碩, 檢討官: 張士重 |
| 15 | 侍講官: 安方慶, 侍讀官: 金白鈞 |
| 16 | 侍講官: 李遶 |
| 20 | 侍講官: 李拭 |